



## 보도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홍보담당 이은경(02-749-2150, 010-8585-0215, ungckorea@gmail.com)

### “제 2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상해 엑스포 개최” (2nd Korea-China-Japan Global Compact Roundtable Conference)

**일시:** 2010.8.2-3(월,화)

**장소:** 중국 상해 엑스포, UN Pavillion

**공동주최:** 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

**주관:**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대상:** 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대표단 및 중국 회원사 대표

### “글로벌콤팩트 한·중·일 협회, 아시아의 CSR/UNGC 가치확산을 위한 두번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개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월 2-3일(월,화) 중국 상해 엑스포, UN Pavillion에서 개최되는 제 2회 한·중·일 글로벌 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 참여함. 지난 2009년 11월 UNGC 한국협회가 주관해 열렸던 제 1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 이어 제 2회로 개최되는 것임.

□ 특별히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 기업 및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해 엑스포 내에서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더욱 그 의미가 있음.

□ 금번 회의 참석자는 이승한 한국협회장(홈플러스그룹), 풀무원 남승우 회장, SKT 남영찬 부사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주철기 UNGC 한국협회 사무



총장 등을 포함한 한국대표단 25명, Toshio Arima(일본협회장, UNGC 국제이사 / Fuji Xerox고문), Akio Nomura 일본협회 이사, Ebashi Takashi 호세이대 연구 센터 소장 등 일본대표단 23명이 참가하고, Chen Ying(중국협회 장, UNGC 국제이사)을 비롯한 중국측 학자, CSR 전문가, 기업대표 등 60여명이 참가함.

## □ 제 2회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개최 배경 및 목적

### \*배경

서구에서 시작된 사회책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분석 및 진단해보고, 글로벌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콤팩트 한·중·일 협회가 매년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UNGC 리더스 서밋에서 채택된 기업의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in the Global Compact)을 아시아 차원에서 검토할 것임. 또한 한중일 기업들의 CSR/ UNGC 가치 이행경험을 글로벌 CSR 커뮤니티에 발표하고자 함.

### \*목적

- 동북아시아에서 CSR/UNGC 참여의 증대현상을 분석하고, 가치확산 방법을 모색함
  - CSR과 UN Global Compact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킴
  -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CSR 가치와 사례를 증대시킴
  - 동북아시아의 관점과 독특한 경험사례를 발굴, 글로벌 CSR 커뮤니티에 나타냄
- 본회의 전날인 8월 2일에는, 한·중·일 4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지난해 각국이 제안해 연구해온 의제를 발표하고, 또한 3개국이 합의하여 조사한 151개 한·중·일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CJK Global Compact Implementation Survey"의 분석 결과와 함의를 논의할 것임. 또한 향후 한중일의 공동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수립하는 시간을 가짐. 한중일 3국의



CSR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를 함.

- 3일 본회의 오프닝 세션(10:00-10:25)에서는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Chen Ying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일본 Akio Nomura 일본협회 이사 및 이승한 한국협회장(홈플러스그룹)의 개회사, Chaosheng Li 중국 상무부 부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임.
- 세션 2(10:00-11:25)에서는, 지난 6월 UNGC 리더스 서밋에서 채택된 기업의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Leadership in the Global Compact)을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중국담당관 Meng Liu가 발표함. 이어서 2일에 열렸던 한중일 연구위원회회의의 토의 내용을 일본 호세이대 Takashi Ebashi 교수가 발표하고, CJK 공동설문조사에 대해 국민대학교 노한균 교수가 보고함. 또한 한국 연구위원들의 연구주제였던 5W\*의 총론에 대해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 세계물위기 대응을 위한 빗물관리 실패러다임에 대해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발표함. 이어 중국에서 제안한 기업 우수 COP(이행성과보고서) 평가 메카니즘에 대한 소개를 중국협회의 Wang Xiaoguang 박사가 함.

\*5W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바람.

- 세션 3(12:20-13:20)에서는, 녹색 경영과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한중일 3국의 발표가 있음. 녹색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의 홈플러스, 중국의 시노스틸, 일본 NEC가 발표함. 공급망 관리는 한국의 SKT, 중국의 Chinese textile & apparel Council, 일본의 후지제록스가 발표함.
- 금번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CSR을 동아시아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분석 및 진단해보고, 아시아 기업들에게 적용 가능한 연구 및 경험사례를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임. 특별히 아시아 경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일이 유엔글로벌콤팩트라는 보편적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 아래,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CSR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임.



- 우리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금번 상해 라운드테이블 회의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봄.
  
- 글로벌컴팩트 한·중·일 협회가 연례회의를 순환 개최함에 따라, 동북아 국민 간 사회분야 협력과 CSR 커뮤니티의 결집 및 향후 진행방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됨. 대중 및 국내외 기업들의 CSR/UNGC 가치의 인식제고와 확대,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금번의 상해 제 2회 한·중·일 글로벌컴팩트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많은 관심과 취재가 요망됨.

**\* 유엔글로벌컴팩트 소개**

2000년 UN본부에서 창설된 유엔글로벌컴팩트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아젠다로서, 기업들이 UN기구, 정부, 노동,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유엔은 이와 같이 세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하여 세계화의 여러 문제에 국제 사회가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

UNGC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시민(corporate citizenship) 이니셔티브로서, 7,700여 회원이 가입(그 중 5,200여개 기업) 및 80여개의 국별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음. 2007년 9월 17일 유엔 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가 설립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172개 기업 및 단체가 한국협회에 가입하여 뜻을 같이하고 있음. 한국협회는 한국 사회 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 및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첨부**

**1. 5W 보도자료**

**2. 제 2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아젠다**